

## 국내매체 보도 동향

### 1. 경제 일반

#### □ 북한 나선·황금평, 시장원리 산업벨트로 육성

- 북한과 중국은 나선·황금평을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는 거점 산업벨트로 조성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짐. 북측은 ‘강성대국 선구 지역’으로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나선에는 원자재 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공업, 경공업, 서비스업, 현대고효율 농업 등 6대산업, 황금평에는 정보, 관광문화, 현대시설농업, 경공업 등 4대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으로 알려짐.
- 최근 공개된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계획 요강’에는 두 지역을 조선 대외교류의 시험지역, 강성대국의 선구지역, 조·중 경제협조의 시범지역으로 건설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나선 경제무역지대는 470km<sup>2</sup>, 황금평 경제지대는 16km<sup>2</sup>로 설정되어 있음. 아울러 황금평과 신의주를 잇는 여객·화물부두 건설, 지대 내 그물망 도로 구축, 황금평-단동 신구간 2개 출입도로 건설의 내용도 담겨 있음.
- 장기적으로는 중국 연변과 북한 라선·청진·칠보산·금강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사할린, 일본 니가타·삿포로, 남측의 속초·부산을 잇는 관광경제권을 형성한다는 계획도 잡혀있다고 알려짐.
  - 이에 대해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그동안 북·중 간에 협의됐던 내용이 종합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중 정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 나선지역과 황금평을 거점 산업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분석함.

연합뉴스, "北라선·황금평, 시장원리 산업벨트로 육성" , 2011.5.23

뉴시스, "北최고인민회의, 황금평·위화도 개발 추진" , 2011.6.7

## 2. 북한농업 일반

### □ 북, 모내기 시작... 거국적 집중 독려

- 북한은 매년 원화협동농장(평안남도 평원군 원화리)의 모내기 시작 소식을 전하며 모내기철을 맞이하는데, 이곳에서 모내기가 시작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전에 없이 불리한 일기조건 속에서도 이곳 일꾼과 농장원들은 벼모판 관리에 힘을 쏟아 실한 모를 키워냈다”며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수리·정비도 제때 끝내고 만반의 준비 끝에 모내기에 진입했다”고 전함.
  - 이에 대해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에서 모를 키우는데 있어 기상조건이 특별히 나쁘지는 않았다”며 “다만 모판을 덮을 비닐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비료도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함.

연합뉴스, "北 모내기 시작... '거국적 집중' 독려" , 2011.5.11

### □ 북, 농번기 비료부족... 옥수수 값 두 배

- 북한 지역에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비료부족으로 인해 중국산 복합비료는 1kg에 옥수수 가격의 두 배인 1,2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5월 13일 “양강도 백암군 지역의 1만 정보 농장에 인분을 지원하면서 가루인분 값이 500원으로 뛰었고, 중국산 복합비료는 1kg에 1,2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면서 “양강도 혜산시 장마당에서 옥수수 1kg이 900원에 거래되고, 밀수꾼들 사이에서 파고철 1kg 역시 900원인데 비해 비료가격이 두 배나 비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함경북도 온성군의 한 소식통도 “장마당에서 강냉이(옥수수) 2kg에 복합비료 1kg을 맞바꾼다”면서 “강냉이 1kg에 750원인데 비료값은 1,500원까지 올랐다”고 언급하고, 장마당에서 비료 값이 높아지게 된 원인에 대해 “지난 겨울 홍남비료연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기업소에서 전력 부족으로 화학비료를 생산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이에 관해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5월 13일 “북한 전체의 연간 비료 사용량이 58만 톤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북한이 사용하는 비료가 10만 톤 정도니까, 필요량의 20%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에서 언급함.

노컷뉴스, "北, 농번기 비료부족... “옥수수값 두 배”" , 2011.5.14

□ 첫 감자수확 앞둔 북, 작황 부진 현실화될까?

- 최근 북한은 화폐개혁 후유증에 따른 구매력 저하와 국가배급 중단, 국제사회의 지원 중단 등으로 극심한 식량부족 상태에 놓여있음. 데일리NK 소식통에 따르면 하루 두 끼 이하를 먹는 주민이 전체의 20%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밝혀짐. 이처럼 극심한 식량난을 호소하고 있는 북한이 올해 첫 감자수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봄감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알려짐.
- 하지만 감자 작황은 예년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WFP 등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료 부족과 자연재해 등으로 봄감자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는데, 7, 8월 식량사정도 좋지 않을 것으로 분석함.
- 전반적인 물가가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감자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식량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이며,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현 상황에서 주민들의 식량수급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봄감자의 시장 유통으로 취약계층이 6,7월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데일리NK, "첫 감자수확 앞둔 北, 작황 부진 현실화될까?" , 2011.5.31